

경제

Biz & Economy

10 광주일보 제17571호 2006년 10월 10일 화요일

주가 ↓ -32.60 1,319.40 (코스피지수)	환율 ↑ +14.60 963.70원 (원/달러)	금리 ↑ +0.02 4.59%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39.10	(-48.22)
다우(6일)	11,850.21	(-16.48)
나스닥(6일)	2,299.99	(-6.35)
닛케이	(체육의 날 휴장)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9.11엔	(+2.62)
유로-달러 환율	1.2598달러	(-1.04)
3년만기 회사채	4.90%	(+0.01)
물금리	4.48%	(보합)

영화상영 30분이상 늦어지면 입장료 전액 환불 받는다

영화상영이 사업자 때문에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표를 취소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든다.

LCD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예안경을 샀을 때 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규정은 9일 서면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3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영화관람 업종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이 처음 반영됐는데, 소비자의 사정으로 영화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영화관람 표준약관이 대부분 그대로 들어갔다.

사업자 때문에 영화 상영이 늦어진 경우 상영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됐으면 입장료 전액을, 상영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됐으면 입장료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때문에 영화 상영이 상영중 10분 이상, 2차례 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료 전액을, 상영중 30분 이상,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료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다. /입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쌀 브랜드 338개 '난립양상'

국내 쌀 브랜드의 난립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9일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쌀 브랜드는 1천873개에 달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전남 338개, 충남 324개, 경북 257개, 경기 222개, 경남 207개 등 순이다.

한편, 지난해 농협 소속 미곡종합처리장(RPC) 187곳 중 절반 넘는 98곳이 적자를 내면서 농협 RPC의 경손실 규모가 1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내년시행 종신형 역모기지론 광주·전남 등 지방은 소외

주택가격 낮아 월 수급액 적고 세제혜택 못받아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매달 일정 액의 수급액(대출금)을 받는 '종신형 역모기지론' 시행을 앞두고 가입조건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수급액이 턱없이 적은 데다 정부의 세제혜택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재경부에 따르면 고령자의 노후 생활 보장과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하지만 이번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우선 집값의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로 인해 매월 받는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경

우 주택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지급액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기준시가 1억5천만원인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 연 4%, 기대여명 83세를 기준으로 월 4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광주 등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16%에 그친 데다 기대여명도 해마다 늘고 있어 보완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억5천만원의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2%에 그칠 경우 월 수급액이 46만원에서 39만원으로 줄고, 기대여명이 85세로 2살 늘어나면 다시 36만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제혜택 기준을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모순이다.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주택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고 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고령자의 경우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전

▲종신형 역모기지론=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주택 구입시 일정액을 대출받은 뒤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 반대 개념으로,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한다.

남 등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 대부분이 25.7평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 실정과의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일반적인 부부의 나이가 3~5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70세 정도 돼야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5세에 은퇴한 사람의 경우 역모기지론의 혜택을 받으려면 무려 15년 이상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

"추석때 받은 상품권 쓰세요"

광주 백화점들 13일부터 바겐세일 돌입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동안 가을 정기 바겐세일에 들어간다.

백화점들은 올 추석에 예년보다 상품권 매출이 10~20%가량 늘어난 점을 활용해 이번 바겐세일기간동안 상품권 회수를 통해 최근의 매출부진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9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3개사가 일제히 오는 13일 바겐세일에 들어가 브랜드별로 10~3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여성패션 브랜드의 70%와 남성패션 브랜드의

85%가 바겐세일에 참여하기로 했다. 세일율은 브랜드별로 10~30%로, 13일부터 19일까지 '가을 출신원 골프웨어 대전'과 13일부터 15일까지 '가을 남성정장 초대전' 등 브랜드 기획전이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추석 상품권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데다 추석 직후 10일동안 상품권 결제비중이 연 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할때 이번 바겐세일동안에 회수되는 상품권이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패션잡화, 신사숙녀 의류, 스포츠 의류, 가정용품 등 가을상품을 중심으로 20~30%의



세일을 실시한다. 식품을 제외한 바겐세일 브랜드 참여율은 65%이다. 박주혁 영일총괄팀장은 "지난해에도 추석직후 바겐세일때 상품권의 60% 이상이 회수됐다"며 "올해는 상품권 판매액이 전년에 비해 10% 늘어난 만큼 이번 세일기간에 70% 이상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로렌, 10년 젊어지다'라는 테마로 일점 브랜드의 70% 이상이 참여하는 파워세일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말기자 bungy@kwangju.co.kr



대주건설 임직원들이 9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한마음 교육'에 참가. 초빙강사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피오레' 최상위 브랜드 만들자

대주건설 임직원 300여명 '한마음 교육'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사인 대주건설은 9~10일 이틀동안 동구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전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하는 '한마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한마음 교육은 ▲자랑스러운 대주인 육성 ▲기업의식과 직업의식 고취 ▲일체감 조성 ▲참여의식과 자기관리 기풍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건설은 이를 위해 강연과 체험단련, 분임토의 등을 통해 창의적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내용을 알차게 준비했다.

9일 실시된 박용재 한무드경영연구소장의 '적당주의를 타파하라', 박

정아 CS솔루션 대표의 예절교육 등 초빙강사의 강연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0일 열린 대주건설 허동석 이사의 품질안전교육과 김동열 상무의 하자관리에 관한 강연, 산악인 엄홍길씨의 '도전과 극복'에 대한 초빙강의는 '피오레'가 국내 최상위 브랜드를 확보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주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연휴에 맞춰 두 차례 임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한마음 교육을 개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져오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우리가 넘버 투" GM대우

자동차업계 2위신경전

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의 '업계 2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판매실적만을 따졌을 때 '1강 2중 2약'의 구도가 형성돼 있다.

현대차가 '1강', 기아차와 GM대우가 '2중', 르노삼성차 쌍용차가 '2약'인 셈이다. 실제 이들 업체가 매달초 발표하는 월간 판매실적을 보면 지난해부터 기아차와 GM대우차가 앞지러워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7월, 12월, 올해 2~3월은 기아차의 판매실적이 GM대우를 앞섰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GM대우가 기아차를 제쳤다.

지난 2일 발표된 9월 판매실적에

서도 GM대우차는 13만7천188대를 판매, 11만6천411대를 판매한 기아차에 보다 2만대 가량을 앞섰다.

이를 놓고 GM대우 내부에서는 "이제는 GM대우를 업계 2위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GM대우의 한 관계자는 "언론이 기사를 통해 완성차 업체들을 나열할 때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 순서가 아니라 '현대차, GM대우차'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아차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GM대우의 판매실적에는 완성차가 아닌 반조립제품 수출이 상당수 포함됐으며,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KD수출은 판매실적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종태기자 jilee@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을..."

KAI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자동환기시스템 '코코' 출시

실내공기청정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동환기시스템

- **오염방지** : 공기, 먼지, 세균, 바이러스, 악취, 냄새, 냄새 제거 등 다중차세대 필터는 95% (90% 이상) OK.
- **에너지절약** : - 실내온도 자동 조절 가능 - 100% 자동 조절 - 100% 자동 조절 - 100% 자동 조절

충분히 시원합니다.

문의 : 062-603-2752

(주)제주무등화관광

(2006년 제주관광박람회 기념특집)

(연하3일목포 - 제주 크루즈여행) "뽕키루어"

제주여행 74,000원

1박2일 제주 크루즈여행 - 1일 전산원전 (1일전 제주 크루즈여행) 74,000원

- 1박2일 제주 크루즈여행 (1박2일 제주 크루즈여행) 74,000원
- 1박2일 제주 크루즈여행 (1박2일 제주 크루즈여행) 74,000원
- 1박2일 제주 크루즈여행 (1박2일 제주 크루즈여행) 74,000원

1박2일 제주 크루즈여행 94,000원

1박4일 제주 크루즈여행 104,000원

064-744-1109 / www.jejuwudeung.com